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 차례 -

01. 전우치전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9p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41~45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37~40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32

02. 김진옥전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17p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3) 34~37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고3) B형 35~38

03. 속향전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21p

2015학년도 수능 B형 35~37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44~48

200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27

04. 수궁가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41p

2016학년도 수능 B형 (토끼전) 37~39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46

05. 심청전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46p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33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43

06. 구운몽 (김만중) - 2026학년도 수능특강 249p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41~43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28

07. 호질 (박지원) - 2026학년도 수능특강 312p

2012학년도 수능 25~28

※

1. 편집 과정에서, 시험지 원본에서 그대로 발췌해서 실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조금의 편집을 거친 후 수록하였고, 그러지 아니한 것은 타이핑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김진옥전은 평가원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 작품이란 점에서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지문과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 해설은 첨부하지 않았으며, 빠른 정답은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01. 전우치전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9p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41~45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37~40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32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슬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슬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길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궁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입급께 아뢰기를,

“고급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처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 촌이요, 너비 삼 척 이 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답**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답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입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답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답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답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답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흠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답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추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그게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황송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했습니다.

전우치: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푹푹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며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퓌 퓌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A]

4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44.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뀌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4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 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 ②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 ③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④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 ⑤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함경도 가달산에 한 도적이 있어 재물을 노략하며 인민을 살해하며 본읍 원이 관군을 발하여 잡으려 하되 능히 잡지 못하고 나라에 장계(狀啓)하니, ㉠ 상이 크게 근심하사 조정애 전지(傳旨)하사 도적을 칠 계책을 의논하라 하시니, 우치 아뢰길,

“도적의 형세 심히 크다 하오니 신이 홀로 나아가 적세를 보온 후 잡을 묘책을 정하리이다.”

㉡ 상이 크게 기뻐하사 어주(御酒)와 인금을 주서 왈,
“적세 심히 크거든 이 칼로 사졸을 호령하라.”

하시니, 우치 사은하고 물러 나와 즉시 말에 올라 장졸을 거느리고 여러 날 만에 가달산 근처에 다다라 보니 큰 산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수목이 뻗뻗하며 기암괴석이 첩첩하니 가장 험악한 지라, 우치 군사를 산하에 머무르고 스스로 하사하신 인금을 가지고 몸을 흔들며 변하여 솔개 되어 가달산을 바라고 가니라.

원래 가달산 산중에 수천 명 적당 중에 한 괴수가 있으니, 성은 엄이요 명은 준이라. 용맹이 절륜하고 무에 출중하더라.

이때 우치 궁중에서 두루 살피더니, 엄준이 엄연히 홍일산*을 받고 천리백총마(千里白驄馬)를 타고 채의홍상(彩衣紅裳)한 시녀를 좌우에 벌이고 종자 백여 인을 거느리고 바야호로 사냥을 하거늘, 우치 자세히 살펴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팔 척이요 낮빛이 붉고 눈이 방울 같으며 수염은 바늘을 묶어 세운 듯하니 곧 일대 걸물이라. 엄준이 추종들을 거느리고 이 골저 골로 한바탕 사냥하다가 분부하되,

“오늘은 각처에 갔던 장수들이 다 올 것이니 마땅히 소 열필만 잡고 잔치하리라.”

하는 소리 쇠북을 울림 같더라.

이때 우치 일계를 생각하고 나뭇잎을 훑어 신병을 만들어 창검을 들리고 기치를 벌여 진을 이루고, 머리에 쌍봉투구를 쓰고 몸에 황금 갑옷에 황색 비단 전포를 겹쳐 입고 천리오추마(千里烏騮馬)를 타고 손에 청사양인도(靑蛇兩刃刀)를 들고 갖쳐 들어가니, 성문을 굳게 닫았거늘 우치 문 열리는 진언을 엄하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장려한 집이 두루 펼쳐졌고 사방 창고에 미곡이 가득하며 차차 전진하여 한 곳에 이르니,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우치 이윽히 보다가 몸을 변하여 솔개 되어 날아 들어가 보니, 으뜸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너 수백 인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거늘, 우치 하는 양을 보려 하고 진언을 엄하니, 무수한 수리가 내려와 모든 장수의 상을 건어 치워 가지고 중천에 높이 떠오르며 광풍이 대작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한 운문차일과 수놓은 병풍이 움직여 공중으로 날아가니, ㉢ 엄준이 정신을 진정치 못하여 뜰 아래 나뭇등걸을 붙들고 모든 군사가 차반을 들고 바람에 떠서 구르더라.

(중략)

이때 우치 문사낭청*으로 임금을 모시고 있더니, 불의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 상이 크게 노하사 왈,
“우치의 역모를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되었으니 빨리 잡아 오라.”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아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하에 꿰리니, ㉤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하며 왈,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작난함도 용서치 못할 바 이거늘, 이제 또 역모를 꾸몄으니 변명하나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졸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팔이 아파 치지 못하거늘, 우치 아뢰되,

“신이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일은 만만 애매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으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길,

“신이 이제 죽사올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올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원컨대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가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왈,

“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체뇨?”

우치 아뢰길,

“신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기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오매 이따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옵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않으리잇고?”

㉦ 상이 가만히 생각하시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끌러 주시고 지필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만학파 만장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밑에 안장 엮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하되, 상이 물어 왈,

“너는 방금 죽을 놈이라.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아뢰길,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아뢰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늘 상이 크게 놀라사 왈,

“내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하시고 그 죄인들은 내어 베라 하시고 친국을 파하시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 홍일산: 붉은 양산.

* 주란화동: 단청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집.

* 문사낭청: 임금의 심문 내용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직분.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함경도 고을 원이 도적을 잡지 못해 우치가 토벌할 기회를 얻었다.
- ② 임금은 우치에게 어주와 인검을 내려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 ③ 엄준은 성 안의 큰 전각에서 장수들과 미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다.
- ④ 집장과 나졸이 우치를 한 매에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청했다.
- ⑤ 우치는 과거의 죄와 역모의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듣고 임금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을 유발한 우치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 ②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 준다.
- ③ ㉢으로 인해 형성된 임금과 우치의 갈등에 제삼자가 개입하여 ㉢을 촉발하고 있다.
- ④ ㉢에서 ㉣으로의 변화는 임금과 우치의 갈등 원인이 제거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⑤ ㉢과 ㉣은 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우치전」은 전우치가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 ‘전우치 설화’를 토대로 다양한 삽화가 결합된 소설이다. 각각의 삽화들은 서로 긴밀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도술 사용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된다.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가 그 예로서 주인공이 조력자 없이 도술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그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한다. 또한 다양한 도술 사용은 다음 삽화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한다.

- ① ㉠과 ㉡는 사건 해결을 우치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
- ② ㉠과 ㉡에서 삽화마다 각기 다른 도술이 사용된 것은 독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하는군.
- ③ ㉠과 ㉡는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되는군.
- ④ ㉠과 ㉡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하는군.
- ⑤ ㉠에서 술개로 변하는 장면과 ㉡에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주인공에게 신비감을 부여하는군.

40.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③ 우후죽순(雨後竹筍)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혼비백산(魂飛魄散)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조선 초에 송경 송인문 안에 한 선비 있으니, 성은 전이요 이름은 우치라. 일찍 높은 스승에게서 신선의 도를 배우되, 본래 재질이 뛰어나고 정성이 지극하여 마침내 오묘한 이치를 통하고 신기한 재주를 얻었으나 소리를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지내므로 비록 가까이 지내는 이도 알 리 없더라.

이때 남방 해변 여러 고을이 여러 해 바다 도적의 노략을 당하고 었친 데 덮쳐 무서운 흉년까지 만나니, 그곳 백성의 참혹한 형상은 이루 붓으로 그리지 못할지라. 그러나 조정에 벼슬하는 이들은 권세 다투기에만 눈이 붉고 가슴이 탈 뿐이요 백성의 고통은 모르는 듯 버려두니, 뜻있는 이가 통분함이 이를 길 없더니 우치 또한 참다못하여 뜻을 결단하고 집을 버리며 세상을 헤치고, 천하로써 집을 삼고 백성으로써 몸을 삼으려 하더라.

(중략)

이때 간의대위 상소하여 왈,
“호서 땅에 사오십 명이 모여 반역을 모의하여 조만간 기병(起兵)한다는 문서를 사자가 신에게 가져왔사오니, 그를 가두어 두고 사연을 아뢰나이다.”

상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과인이 박덕(薄德)하여 ㉠ 곳곳에 도적이 일어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하고 금부와 포청으로 잡으라 하시니, 오래지 않아 적당을 잡았거늘, 상이 친히 신문하는데 그중에 한 놈이,

“선전관 전우치 재주 과인(過人)하기로 신 등이 우치로 임금을 삼아 만민을 평안케 하려 하더니, 하늘이 돕지 않아 발각 되었으니 죄사무석(罪死無惜)*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 우치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있더니, 뜻밖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상이 대로하사,

“우치 역모함을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 되었으니 빨리 잡아오라.”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들어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 하에 꿇리니,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 하여 왈,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도 용서치 못할 일 이거늘, 이제 또 역적죄에 들었으니 ㉡ 변명할들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짐장과 나졸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 팔이 아파 치지 못하 거늘, 우치 아뢰되,

“신의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이 일은 만만 애매 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아니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기를,

“신이 이제 죽사울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할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엇드려 바라건대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가라사대,

“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채느냐?”

우치 아뢰기를,

“신이 본대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니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고 죽사오면 ㉣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

상이 가만히 생각하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끌러 주시고 지필(紙筆)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 만학과 만장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그 밑에 안장 지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謝恩)하매, 상이 묻기를,

“너는 ㉥ 방금 죽을 놈이라, 이제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아뢰기를,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아뢰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늘, 상이 대경하사 왈,

“내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전우치전」-

* 죄사무석: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죄가 큼.

* 문사낭청: 죄인을 신문할 때 기록과 낭독을 맡은 입시 벼슬.

29. 윗글을 통해 ‘전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지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였다.
- ②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다.
- ③ 임금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 ④ 사사로운 이익보다 대의를 중시하였다.
- ⑤ 예전에도 나라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다.

30. [A]와 비교하여 <보기>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조 대왕 시절에 강원도 원주에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며, 성은 전이요 명은 중보였다. 근본이 관노였지만 부자였고 늦도록 아들이 없어 걱정이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 중보는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제한 공으로 벼슬을 얻었다. 인조 10년에 전중보는 신선의 제자가 자신의 덕성을 칭찬하는 꿈을 꾸 후 아들을 얻어서 이름을 우치라 하였다. 우치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걷고, 오십 일 만에는 언어를 통달 하였다. 전중보는 불도를 가르칠 생각으로 우치를 절에 보냈다.

- ① 전우치의 태몽을 제시하여 인물의 신이성을 강화했군.
- ② 전우치의 출생을 전우치 아버지의 행적과 관련지었군.
- ③ 전우치의 득도 과정을 보여 주어 초월적 인물임을 강조했군.
- ④ 전우치의 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각했군.
- ⑤ 전우치 아버지의 원래 신분을 밝혀 전우치가 하층 출신 영웅임을 암시했군.

31. ㉠의 그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 의롭지 못한 자를 단죄하는 방법이다.
 ㉢.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이다.

- ① ㉠ ② ㉠, ㉢ ③ ㉡, ㉢
- ④ ㉡, ㉣ ⑤ ㉠, ㉡, ㉣

32. ㉠~㉣를 바꾸어 쓴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침소봉대(針小棒大)하니
- ② ㉡: 목불인견(目不忍見)이리라
- ③ ㉢: 수수방관(袖手傍觀)하거늘
- ④ ㉣: 각골통환(刻骨痛恨)하리이다
- ⑤ ㉣: 기사회생(起死回生)하리니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02. 김진옥전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17p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3) 34~37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B형 (고3) 35~38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南海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국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무양 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 정동한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 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

용왕 왈,

“이는 수중의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칠십이 넘도록 녹발(綠髮)이 장춘(長春)이요, 또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하니, 이는 극한 보배로소이다.”

원수가 사양하다가 받으니, 용왕 왈,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와 과인의 수부를 보전케 하니, 어찌 천자에게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하고, 글월을 닦아 원수께 부치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사례하고 받으니, 일광노가 왈,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오.”

하고, 일광주(日光珠) 한 알을 주고, 여동빈은 또 한 알 부채를 주어 왈,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에 부치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니, 이는 큰 보배라. 그대는 잘 간수하라.”

하고 두목지는 칼 하나를 주며 왈,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金瓢桶) 하나를 주며 왈,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로주라 하는 술이 있으니, 천만인이 먹어도 진(盡)치 못하니 가져가라.”

하니, 원수가 받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향하여 오더라.

각설, 차시에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운이 통곡 왈,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노.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인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달래어 왈,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리오.”

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 소소(昭昭)한 창천(蒼天)이 굽어살피실지라.

용왕이 그 강의 용신(龍神)에게 칙지를 내리사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도로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무수히 토하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중략)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車上)에 실으려 하니, 난영이 소저를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왈,

“가련하고 애달음사, 유 부인 같은 요조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冤死)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요. 천지신명과 일월성신과

황천후토(皇天后土) 굽어살피옵소서.”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요.

한참 이렇듯 힐난할 제, 선영과 동한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바빠 베라.’ 재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재촉하더라.

[가]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 왈,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계명(鷄鳴) 전에 다 올려 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가내하(無可奈何)로소이다.”

원수가 차언을 듣고 양친 탄식하며 화산을 향하여 배례 왈, “이 강은 길이가 만 리요, 너비가 삼십 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너리이꼬. 선생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하고 무수히 배례하더니, 이때 화산 도사가 천지 산간에서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과,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조화를 부려 일엽소선을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원수가 대화하여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회 중남산을 바라고 말을 짓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 삼거리에 무수한 사람이 삼대같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오색 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을 달았거늘,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

하고 금편을 들어 말을 치니 ㉢ 이 말은 비룡마(飛龍馬)라.

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법장(法場)에 다다라 살펴보니, 부인은 기절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 제,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一陣)을 헤치고 수레를 박차며 낭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정동한 등이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지라.

원수가 낭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왈,

“부인아!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 하옵소서.”

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왈,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모친은 진정하옵시고 부친을 뵈옵소서.”

하고, 얼굴을 한테 대고 뒹굴며 통곡하니, ㉣ 천지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피하더라.

㉤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동한 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大官)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십분 인분(仍憤)하고 오직 부인을 구호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무가내하(無可奈何): 달리 어찌할 수가 없음.

3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 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 부인을 구했다.
- ② 김진옥은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환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 ④ 난영은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 ⑤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다.

35. [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여 주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심정과 조용하는 배경을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상황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주인공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 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전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 두 세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7.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과 ㉣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짐작게 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인물의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김진옥은, 내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화산도사를 만나 무예와 학문을 익혀 한림학사가 된다. 황제는 진옥이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천상의 인연에 따라 진옥은 유승상의 딸(유부인)과 결혼한다. 이후 전여선과 결혼한 우양공주는 진옥에 대한 복수심으로 간신들과 결탁하고, 진옥이 전쟁에 참여한 틈을 노려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지만 김응철 등의 반대와 황후의 만류로 결국 실패한다. 황제는 진옥을 양산군에, 유부인을 정렬부인에 봉하고, 유부인과 김진옥은 공주의 죄를 용서한다.

부마 전여선과 공주가 양산군을 시기하여 다시 해하고자 하되 온갖 계교를 다 써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함이라. 서로 의논하되, 태자(太子)를 죽이고 천자와 양산군을 내치고 **천자의 지위를 빼앗고** 하여 계교(計巧)를 행할새, 장군 이지필과 수문장(守門將) 양철 등으로 더불어 약속을 정하니라.

이때 태자의 나이 구세라. 총명하여 백사(百事)를 무불통지(無不通知)하니, 일세청군이 될지라. 일일은 후원의 봄 풍경을 완상하고 돌아올새 태자 침전에 드사 우연히 찬 기운이 몸에 닿아 병이 나서 침석에 누워 계시더니, 공주가 천자에게 나아가 아뢰되,

“태자가 양산군과 함께 후원에 가 놀고 돌아와 병이 나사 기운이 불평하시니 실로 안타깝고 답답하여이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양산군을 청하여 태자의 병을 의논하실새, 공주가 **태자궁(太子宮)**에 이르러 문병하고 모셔 있다가, 시녀가 탕약(湯藥)을 올리려 하거늘 공주가 받아 가지고 들어오며, 미리 독약을 몸에 지녔다가 빨리 내어 **탕약에 타** 가지고 들어와 태자에게 드리니, 태자가 드시려 하다가 약 냄새 심히 독한 듯하니 먹을 길이 없는지라. 이에 가로대,

“아직 싫으니 조금 지체하여 먹으리라.”

공주가 왈,

“약을 드시지 않으시면 신체 안위를 어느 때에 회복하시리잇고?” 하며 약그릇을 받들어 간곡히 권하니, 태자가 마지못하여 약을 받아 마시니, 가련하다! 어린 태자가 독약이 장위(腸胃)에 들어가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공주가 가만히 심복을 불러, **경화문 밖**에 이지필과 양철을 매복하였다가 양산군이 나가거든 내달아 베라 하고, 한편으로 모든 간신에게 알리되, ‘이제 태자가 약을 먹었으니 분명 죽을 지라. 오봉루에 북을 울리면 모든 신하가 들어올 것이니, 불문 꼭꼭하고 다 베라.’하고, 공주가 급히 천자 침전에 들어가 황망히 아뢰되,

“태자가 병세 위중하시니 신첩이 너무나 황공하나이다.”

하고 나와 부마를 청하여 귀에 대고 계교를 가르치니, 부마가 기꺼 양산군을 보고 왈,

“내 들으니 정렬부인이 만삭에 낙태하여 위급하다 하더이다.”

양산군이 그 말을 듣고 대경하여 급히 나오려 하더니, 홀연 한 궁녀가 고하되,

“태자가 졸지에 승하시니이다.”

할 즈음에 천자가 들으시고 대성통곡(大聲痛哭)하여 양산군을 부르샤 한가지로 태자궁으로 들어가시는지라.

전여선이, 천자와 양산군이 친히 태자의 시체를 보시면 독약에 의해 죽음을 아시고 사정을 조사하여 밝히면 역모가 탄로할까 하여 급히 쫓문으로 나가 일을 주선하려 하더니, 매복하였던 복병이 양산군이 나오는 줄 알고 내달아 일시에 창검을 들어 죽이고 보니 양산군이 아니요, 부마 전여선이라. 모두 대경실색하여 아모리할 줄 모르더라.

차시 김응철이 태자가 승하고 쫓문에 대변(大變)이 났음을 듣고 크게 놀라 황극전(皇極殿)에 들어오더니, **경화문 밖**에 이르러 보니, 도총장군 정한영이 품속으로 ① **일봉서(一封書)**를 내어주거늘, 응철이 보고 수상히 여겨 수문장(守門將)더러 문왈,

“그대 무슨 서간을 받으뇨?”

수문장이 대왈,

“한영이 주기로 받았나이다.”

하고 손을 들어서 북(北)을 가리키니, 복병(伏兵)이 이에 응하여 내달아 응철을 에워싸고 죽이려 할새, 동령장군 호동과 우승상 조선이 들어오거늘, 응철이 한칼로 수문장을 베고 그 서간을 앗으니, 복병이 다 흩어져 달아나더라.

응철이 그 서간을 양산군께 드리니 양산군이 보고 대경낙담하여 정신을 진정치 못하더라. 양산군이 급히 본부(本府)로 돌아와 목욕재계하고 종남산을 향하여 삼 일을 지성으로 기도하니, 화산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양산군의 손을 잡고 왈,

“그대 무슨 연고가 있어 나를 청하나뇨?”

양산군이 공경 대왈,

“국가에 망극한 변(變)이 있사와 선생을 뵈옵고자 함이니이다.”

도사가 왈,

“이제 태자가 별세하시고 쫓중에 대변(大變)이 난 줄 내 **이미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왔으니, 가져다가 태자의 입에 넣으면 회생하리니 빨리 가서 구하고, 더디지 말라.”

하고 갑자기 사라지거늘, 양산군이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궐내**를 향하여 들어오더라.

차시 공주가 태자를 독살하였으나 부마가 죽고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정히 답답하더니, 일계를 생각하고 궐내에 들어가 울며 상계 아뢰니,

“양산군을 성상이 태산 같이 믿으시나, 신첩이 자세히 듣자오니 양산군이 환자(宦者)로 더불어 동모(同謀)하여 먼저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하다가, 부마가 알고 들어오매 황상께서는 미처 범치 못하고 먼저 애매한 부마를 해(害)하시니이다.” 상 왈,

“네 어찌 그 진위를 자세히 아난다?”

공주가 체읍 대왈,

“도총장군 한영이 그 말을 하더이다.”

상이 진노하사 급히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시니, 한영이 아뢰는 말이 또한 공주의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지라. 상이 크게 의심하시더니 김응철이 아뢰되,

“공주가 태자 전하를 독살하여 승하시게 한 후 모역(謀逆)하려다가 성사치 못하고, 하늘이 무심치 않으사 반수기양(反受其殃)*하옵고 죄를 남에게 돌려보내려 하여 무죄한 양산군을 모함하오니 공주를 바빠 국문하사 그 간상(奸狀)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히옵소서.”

상이 들으시고 반신반의(半信半疑)하사 결정을 유보할 즈음에 양산군이 들어오거늘, 상이 문왈,
“경이 어디로 갔더뇨?”

양산군이 태자의 급하심을 보고 회생하실 약을 구하러 갔던 일을 아뢰고, 즉시 ㉠ 환약(丸藥)을 내어 드린 후 천자와 한가지로 태자궁에 들어가 태자를 뵈오니, 승하하신 지 오래되 조금도 생시나 다름이 없는지라. 즉시 약을 만들어 태자의 입에 넣으니 이윽고 호흡을 통하여 회생하시거늘, 상이 태자의 환생함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사 왈,
“경의 태산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

하시고 역모를 모의한 자들을 조사하여 장안에 잡하고 인하여 양산군과 김응철로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여 다스리니, 차후는 천하가 태평하고 사방이 무사하여, 산에 도적이 없고 백성이 평안하더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 환자(宦者): 환관, 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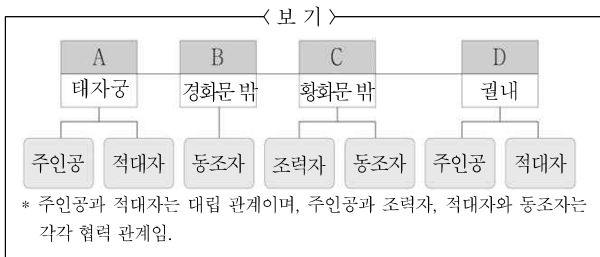
* 반수기양(反受其殃): 남에게 재앙을 입히려다 오히려 재앙을 당함.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악인의 교활한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진술이 드러나 있다.

36. <보기>는 윗글의 주요 공간 및 관련 인물을 구조화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은 '태자의 죽음'을 알게 된 후 A로 이동하게 된다.
- ② 적대자는 B의 동조자에게 '부마의 죽음'을 막기 위해 주인공을 해칠 것을 지시한다.
- ③ 조력자는 '태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입궐하지만 C에서 기다리던 동조자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된다.
- ④ 적대자는 D에서 '태자의 죽음'과 '부마의 죽음'을 모두 주인공 탓으로 돌린다.
- ⑤ 주인공은 D로 이동하여 '태자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밝힌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웅소설은 도식성과 환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영웅의 위기와 극복 과정은 도식성에, 초월적 존재의 개입은 환상성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진옥전'의 경우,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면서 해소된 듯한 갈등이 재발하고, 신이한 존재의 능력이 부각되는 등 도식성과 환상성이 강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층을 고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위기 상황의 반복은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신이한 존재의 개입에 의한 갈등 해소는 독자들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 ① '천자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행위는 인물 간의 애정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확장된 것이자 도식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독약'을 태자의 '탕약에 타'는 대목에서 독자들은 긴장하면서도 이후 전개될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군.
- ③ 신이한 존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영웅 소설의 환상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위기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온 행위는 초월적 존재의 능력이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는 장면에서 독자들의 심리는 급속히 이완되어 안정감을 찾겠군.

38. ㉠과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인물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고, ㉡을 통해 인물에 대한 다른 인물의 신뢰가 유지된다.
- ② ㉠을 통해 인물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게 되고, ㉡을 통해 인물은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 ③ ㉠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게 되고, ㉡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이 유보된다.
- ④ ㉠을 통해 인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을 통해 인물이 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 ⑤ ㉠을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은 완화되고, ㉡을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03. 속향전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21p

2015학년도 수능 B형 35~37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44~48

200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27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일어나서 ㉡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만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A] “첩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 하나이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 하나이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니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아올까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B]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 가실 곳이 또한 머오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 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 하더라.

숙향이 부인에게 왈,

“첩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중에 죽었으면 시왕전에 왔사울 것이니 반가이 만나 볼 수 있겠나이까?”

[C] “그대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중략)

이선이 숙향이 보내 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하더니 숙부인 왈,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 집에 가 보고 오라 하고,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숙부인이 듣고 크게 놀라 왈,

“선이 비록 상서의 이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었으며 선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거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리하니 내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 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

하고 즉시 행장을 차려서 장안으로 가니라.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 이때 낭자가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라. 이를 보는 사람이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

김전이 왈,

“네 고향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나 되며 누 집 딸이라 하나뇨?”

낭자 왈,

“오 세에 부모를 난중에 잃고 사방에 유리(流離)하옵다가 겨우 의탁한 몸 되었사오니 고향과 부모의 성명은 모르오되 나이 찬 후에 혹 듣사오니 김 상서의 딸이라 하오며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김전의 아내 장 씨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김전에게 왈,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죽은 우리 딸과 같삽고 연치(年齒) 또한 같사오되 다만 김 상서의 딸이라 하니 그 근본을 자세히 모르오나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으니 혹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마음이 자연 비창(悲愴)하오니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오소서.”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옳게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回報)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경액: 신선이 마신다는 신비로운 약물.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 ②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③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 ④ '김전'은 '장 씨'의 말을 수용하여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 ⑤ '장 씨'는 '숙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숙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 중에는 '천상'과 '선계'를 포함하는 '천상계'와 인간 세상인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이 원리는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과 보상,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

- ① [A]에는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②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③ [B]에는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④ [C]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⑤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44~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남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 후에 부인이 잔치를 가려고 봉차를 찾으러 간 데 없었지라. 괴이하게 여겨 세간을 내어 살펴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녀를 죄 주었다. ㉠

이때 사향이 들어오며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오?”

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숙향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세간을 뒤지더니 무엇인가 치마 앞에 감추어 가지고 자기 침방으로 갔으니 수상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숙향의 빙옥 같은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사향이 말하기를,

“숙향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당신의 세간을 장만하노라 그러하온지 가장 부정함이 많습니다. 어쨌든 숙향의 세간을 뒤져 보십시오.” ㉡

부인이 또한 의심하여 숙향을 불러 말하기를,

“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숙향이 말하기를,

“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하고 그릇을 내어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 지라.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네 아니 가져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 있느냐?”

하고 승상께 들어가 말하기를,

“숙향을 친딸같이 길렀으나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함 속에 넣고 종시 몰라라 하다가 제게 들켰사오니,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니 이상하지 않으나 장도는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그 일이 가장 수상합니다. 어찌 처치하면 마땅하겠습니까?” ㉢

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요사이 숙향의 거동을 보오니 혹 글자도 지으며, 외인이 자주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승상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제 나이가 찼음에 필연 외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을 것이니 빨리 쫓아내십시오.”

(중략)

숙향이 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하기를,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 나리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며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가더라. ㉣

한 곳에 다다라 문득 보니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을 헤매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었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김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었지라 모두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더라.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들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염주를 바베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들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려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까?”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침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금봉차: 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비녀.

*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식용 칼.

*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 소아: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 적강: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 태을: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45.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ㄱ~ㄴ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인물	역할	사건의 내용
사향	(ㄱ)	도둑질의 누명을 씌움
		(ㄴ)의 누명을 씌움
승상	심판자	(ㄷ)
숙향	피해자	(ㄹ)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공모자 | 부정한 행실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② 공모자 | 내통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 ③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입증함 |
| ④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⑤ 음해자 | 부정한 행실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46.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향의 적감은 당시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군.
- ② 용녀의 보은은 당시 독자들에게 인과응보의 이치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군.
- ③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을 증대시키려는 것이군.
- ④ 옥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들이 타고난 운명을 비판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군.
- ⑤ 숙향과 태율이 만나는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안정된 현실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47. ㉠에 나타난 숙향의 처지를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 | |
|--------------|--------------|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 ③ 혈혈단신(孑孓單身) | ④ 사고무친(四顧無親) |
| ⑤ 진퇴유곡(進退維谷) | |

48. <보기>의 ‘전기수’처럼 위 글을 읽다가 멈추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보 기>

전기수(傳奇叟)는 ‘숙향전’, ‘소대성전’ 등과 같은 국문소설을 장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책을 읽어 가다가 사람들이 꼭 더 듣고 싶어 할 만한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 전기수의 이런 수법은, 한 장회를 끝낼 때 새로운 사건의 첫 부분만 짧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소설의 장회 나누기 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때에 상서가 국사(國事)에 매이어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더니 상서의 부인이 생(生)의 행동거지(行動舉止)가 수상함을 보고 하인들을 ㉠ 힐문(詰問)하였다. 이에 하인들이 부득이하여 사실대로 아뢰니 부인이 크게 놀라 즉시 상서께 기별하였다. 상서가 또한 통분하나 ‘누님께서 주혼(主婚)*하고 선이 몹시 사랑한다 하니 달리 금치 못하리라.’ 하고 낙양 태수에게 기별하되,

“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숙향이라는 계집이 가장 ㉡ 요악(妖惡)하다 하니 잡아다가 죽이라.”

하였다. 이생은 고모 집에 있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 때 낙양 태수 김진이 상서의 말을 듣고 즉시 관원들을 풀어 숙향을 잡아 오니 숙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잡히어 관전(官前)에 이르니 태수가 물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창녀이기에 상서 님의 공자를 ㉢ 고혹(蠱惑)하였느냐? 이제 처 죽이라는 기별이 왔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하고 아랫사람들에게 호령하여 형틀에 매고 치려 하니 낭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소녀는 다섯 살 때 피란 가던 중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구걸하며 다니다가 할미집에 의지하였는데, 이랑이 빙례(聘禮)*로 구혼하움에 상하 체면에 거스리지 못하여 성혼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첩의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태수가 말하기를,

“나는 상서의 기별대로 할 뿐이다.”

하고 치기를 재촉하니 숙향의 화월(花月) 같은 용모에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눈물이 멍멍하여 슬피 우니 그 경상(景狀)을 차마 못 볼러라. 집장 사령이 매를 들어 치려 한즉 팔이 무거워들지 못하였다. 태수가 크게 노하여 다른 사령으로 갈아 치웠으나 또한 매 끝이 땅에 붙고 떨어지지 아니하니 태수가 고이히 여겨말하기를,

“필시 애매한 사람이리라. 그러나 상서의 기별임에 나로서는 어찌지 못하겠다.”

하고 동여매어 물에 넣으려 하였다. 이 때 태수의 부인인 장씨의 꿈에 숙향이 앞에와 울며말하기를,

“부친께서 저를 죽이려 하거늘 모친이 어찌 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부인이 놀라 깨어시비로하여금,

“상공이 무슨 공무를 보시는가 알아 오라.”

하였다. 시비가 되돌아 와 말하기를,

“상공이 이 상서의 영(命)으로 그 맥 머느리를 죽이려 하십니다.”

하니 장씨가 놀라 급히태수를청하여말하기를,

“여아(女兒)를 잃은 지 십여 년에 한 번도 꿈에 보이는 일이 없더니 아까 몽중에 숙향이 울며 여차저차하오니 매우 이상합니다. 오늘 보시는 공무(公務)는 어떤 일입니까?”

하였다. 태수가 말하기를,

“이 상서의 아들이 숙향에게 고향되어 부모를 속이고 장가 들었음에 제게 기별하여, ‘죽이라’ 하기에 이번 일을 하는것입니다.”

하니 장씨가 말하기를,

“몽사가 이상하고 이 상서의 머느리가 또한 피란 중에 부모를 잃었다 하니 그 근맥을 물어 보겠습니다. 일을 잠시만 미루어 주십시오.”

하였다. 태수가 이에 응낙하고 하령하여, 가두라 하니 낭자

악하다 악한 몸에 큰 칼을 쓰고 누수 만면(淚水滿面)*하여 옥에 들며 말하기를,

“이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 옥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낙양 옥중이다. 내일은 죽을 것이니 불쌍하구나.”

하거늘 낭자 헤아리되, ‘이랑은 내가 죽는 것을 모를 것이니 소식을 누가 전하리오?’ 하고 애통해 하더니 날이 밝음에 문득 청조(靑鳥) 날아와 울거늘 낭자가 적삼 소매를 떼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편지를 써 새의 발목에 매어 주며,

‘이렇게 전하라.’ 경계하니 청조가 두 번 울고 날아 갔다.

이 날 이랑이 고모 집에서 자는데 문득 이랑의 고모가 잠결에 대경 대로하여 말하기를,

“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 또한 길렀음에 주혼하였던 것인데,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어찌 이렇듯 걱정을 끼칠 수 있는가?”

하거늘 생이 부인을 흔들며 깨웠다. 부인이 정신을 차려 생에게 꿈 얘기를 이틀 즈음에 문득 청조가 날아와 이랑의 앞에 앉거늘 자세히 보니 발목에 한 봉물이 매여 있는지라 끌러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A] “박명 첩 숙향은 삼가 글월을 이랑 좌하에 올립니다. 첩이 전생 죄를 차생(此生)에서 피하지 못하여 속절없이 낙양 옥중의 흙이 되니 죽기는 섭지 아니하나 낭군을 다시 못 보니 지하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엇드려 비옵건대 낭군은 천첩을 생각지 말고 말하시고 천금같이 귀한 몸을 ㉣ 보중(保重)하십시오.”

하였거늘 이랑이 편지 글에 크게 놀라 그 글을 고모에게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함께죽고자하니고모가말하기를,

“내 몽사와 같으니 장차 어찌하리오? 그러나 경솔히 굴지 말고 할미 집에사람을시켜자세히알아오라.”

하며 일변으로 상서 집 노복을 불러 물으니 노복 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부인이 알으시고 상서께 기별하여 여차저차한 것입니다.”

하거늘,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내 주혼함을 업수이 여기고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사람을 죽이려 하는구나. 내 친히 경성으로 올라가 상서를 만나 결단하리라.”

하고 ㉤ 치행(治行)하여 경성으로 갔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생: 이 상서의 아들, 이름은 선

* 주혼: 혼사를 맡아 주관함.

* 빙례: 혼례.

* 누수 만면: 눈물이 얼굴에 흘러 내림.

23. 윗글을 쓰기 위해 작가가 <보기>와 같은 구상을 했다고 할 때,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3점]

—<보 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숙향

◦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인가?

1. 상서로 하여금 이랑과 숙향의 관계를 알게 함 …… ①
2. 상서와 낙양 태수의 상하 관계를 이용함 …………… ②

◦ 어떻게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1. 처형의 보류
 - 형장 장면의 이적(異蹟) …………… ③
 - 태수 부인의 꿈
 - 동정적인 여론 조성 …………… ④
2. 상황 전환을 위한 공간 매개 - 청조 활용 …………… ⑤
3. 낙양과 경성의 연결 - 고모의 상경

24. ㉠~㉢의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힐문(詰問) : 되받아 물음.
- ② ㉡ 요악(妖惡) : 요사하고 간사하며 악독함.
- ③ ㉢ 고희(蠱惑) :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함.
- ④ ㉠ 보중(保重) : 몸의 관리를 잘하여 건강하게 유지함.
- ⑤ ㉢ 치행(治行) : 길 떠날 여장을 준비함.

25.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향'은 지순한 사랑의 소유자이다.
- ② '고모'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다.
- ③ '낙양 태수'는 위계 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 ④ '상서'는 가문과 신분을 중히 여기고 있다.
- ⑤ '이랑'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고 있다.

26. [A]에 나타난 숙향의 심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낙동강에서 당신 처음 만났더니
보제원에서 다시 당신과 헤어지네.
이 도화(桃花)야 땅에 떨어져 흔적조차 없을지언정
달 밝으면 어느 때인들 당신 생각 않으리.
- 도화, 낙동강 -
- ②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네.
봉우리마다 단풍잎이 지네.
중이 물을 길어 돌아가니
문득 연기가 나무 끝에서 피어나네.
- 이이, 산속에서 -
- ③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나
세상에 나를 알아 주는 이 없네.
창 밖에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 밖을 내닫네.
- 최치원, 가을 밤 비 내릴 때 -
- ④ 세상은 어지러운 시비(是非)뿐
십 년 동안 내 마음에 때만 묻혔네.
지는 꽃 우는 새 봄바람 속
어느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고 싶네
- 김제현, 무설사에 부치다 -
- ⑤ 슬퍼도 참아야지, 세상사 이런 것을.
당신은 반평생을 그림을 공부했네.
내일이면 호연히 떠난 뒤에는
나는 몰라, 또 어디로 떠돌아다닐는지…….
- 계생, 이별에 부쳐 -

27. 윗글을 TV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자. 다음 회를 예고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상서와 고모의 만남, 아! 가 없는 숙향의 운명은 과연 어찌될 것인가? 또한 낙양 태수 부부와 숙향의 관계는 밝혀질 것인가?
- ② 애통하게 헤어진 연인을 이어 주는 태수 부부의 활약상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애뜻하여라, 숙향과 이랑은 다시 만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 ③ 사랑하는 연인의 가슴 아픈 이별, 이랑에 대한 숙향의 애절한 그리움, 그러나 운명은 철저히 숙향을 외면하고……. 홀로 남은 이랑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 ④ 숙향에 대한 태수와 상서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는데……. 한편, 숙향을 구하기 위한 태수 부인의 은밀한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과연 태수 부인은 숙향을 구해 낼 수 있을 것인가?
- ⑤ 갈수록 깊어지는 상서 부인과 고모의 갈등……. 짧은 연인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안타까워라, 숙향에 대한 태수 부부의 뜻밖의 호의도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인가?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04. 수궁가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41p
2016학년도 수능 B형 (토끼전) 37~39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46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 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더니,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피와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死)라. 무이불식(無以不食)이라, 모조리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네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왔으며 움쳐 든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마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
 “게서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 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몰라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어디 좀 알아봅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 푹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가 성중(楚歌聲中)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단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초중 철환 단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림(東林)을 헤치면서 우루우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 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느고.”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뽀새,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연석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파연(罷宴) 후에 왕께 주왈,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 자연 회복하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불일내(不日內) 평복(平復)하오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도 믿고 듣는지라. 즉시 하령하되,

“출세(出世)하였던 별주부 오래 묵은지라. 법을 좇아 잡아들 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되,
 “㉣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진다면 좋은 활이 습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 오나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살 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불가사문어 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응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희하노라.”

하시니,
 이때 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 동행한 정분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하리라.”

하고, ㉤ 즉시 별당을 소쇄(掃灑)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칭하여 상좌에 앉히고 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작이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 불가사문어인국: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 ③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들이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야. ㉠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겨 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야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며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중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으면 소신의 구족(九族)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몸쓸 놈아. 왕명이 지중 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길(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A]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하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계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나)

(중머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수로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 온 것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던져 두고 입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싫소이까.”

(아니리)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즙치’를 하나 주십디다.”

“아니 무엇, ‘의사즙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짹 퍼 놓고 보면 구멍이 한 두서넛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고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며 ‘그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일천 오백 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 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딱한 일이오.”

“너 이놈 토끼야.”

“네.”

“네 목숨을 살려 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 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럼 그것이 어데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 들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네.”

바위 옆에다 턱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해 못 살겠다. 빨리 ‘의사즙치’ 좀 나오너라.”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놓아 달라는 대로 좀 봐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 올 테니.”

토끼는 피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틈에다 쑥 허니 넣고,

“장군님, 조금만 봐 주시오. 아, 당을 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조금 조금.”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 장을 내겼다.

“세월이 여류허여…….”

“너 이놈 토끼야. 아, 내 시장해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해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너 이놈 독술아.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B]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 주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즙치’라 하는 것이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 칠중칠금: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 용봉: 중국 하나라의 신화로, 걸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③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 ④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 ⑤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44. [A]와 [B]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권력자에 기대어, [B]는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득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45. ㉠에 담긴 '용왕'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토끼가 말하는 것을 보니,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대단하군.
- ② 토끼가 돌아올 때까지 수주대토(守株待兔)하듯 기다려야겠군.
- ③ 토끼가 이리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니 말로라도 대접하는 척 해 주지.
- ④ 천려일실(千慮一失)이러는데,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 ⑤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유분수지,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 주어야 하다니.

46. 윗글의 '의사슴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수리의 관심을 토끼에게서 돌리는 수단이 된다.
- ②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혀 신빙성을 높이려고 한다.
- ③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실재하지 않으면서, 실재하는 존재들에 영향을 끼친다.
- ⑤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05. 심청전 (작자 미상) - 2026학년도 수능특강 146p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33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43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왓,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금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나?”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장승상택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삼백 석을 주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에게 여쭙즉 쌀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하니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던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택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라.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엎질러진 물이요, 쓰아 놓은 화살이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삼침 겹깃, 하절 의복 한삼 고이 박아 지어 들여 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짜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 두고, 행선 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쏘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중략)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 심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래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 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심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버지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 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랴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나?”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짹짹’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못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 작자 미상, 「심청전」 -

[A]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봉사’의 대화에서, ㉠에 등장하는 인물이 ‘심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④ ‘심봉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심봉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3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심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 ③ '심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심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심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⑤ '심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봉사'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 ①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 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심청이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수궁에 머물 적에 옥황상제의 명이니 거행이 오죽 하랴. 사해 용왕이 다 각기 시녀를 보내어 아침저녁으로 문안 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서 문안하고 호위하며, 금수능라 비단옷에 화용월태 고운 얼굴 다 각기 잘 보이려고 예쁜 모습 웃는 시녀, 얌전하게 차린 시녀, 천성으로 고운 시녀, 수려한 시녀들이 주야로 모실 적에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니, 상당에는 비단 백 필, 하당에는 진주 서 되었다. 이처럼 받들면서도 오히려 잘못하지나 않을까 조심이 각별했다.

이때 무릉촌 장 승상 댁 부인이 심 소저의 글을 벽에 걸어 두고 날마다 징험하되 빛이 변하지 아니하더니, 하루는 ㉠글 속자에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여 검어지니, ‘심 소저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여 무수히 슬퍼하고 탄식하더니, 이윽고 물이 건지고 빛이 도로 황홀해지니, 부인이 괴이히 여겨 ‘누가 구하여 살아났는가?’ 하며 심분 의혹하나 어찌 그러하기 쉬우리오.

그날 밤에 장 승상 댁 부인이 제물을 갖추어 강가에 나아가 심 소저를 위하여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바치려 마음먹고 시비를 데리고 ㉡강가에 다다르니, 밤은 깊어 삼경인데 첩첩이 쌓인 안개 산골짜기에 잠겨 있고, 첩첩이 이는 연기 강물에 어리었다. 편주(片舟)를 흘리저어* 중류에 띄워 놓고, 배 안에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이 친히 잔을 부어 오열하며 소저를 불러 위로하니,

“아아! 슬프다, 심 소저야.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즐거워함은 인정에 당연케할 일련단심에 양육하신 부친의 은덕을 죽음으로써 갚으려 하고, 한 가닥 쇠잔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니, 고운 꽃이 흩어지고 나는 나비 불에 드니 어찌 아니 슬플쏘냐. 한 잔 술로 위로하니 응당 소저의 혼이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 하리니 속히 와서 흠향함을 바라노라.”

하며 눈물 뿌려 통곡하니 천지 미물인들 어찌 아니 감동하리. 뚜렷이 밝은 달도 구름 속에 숨어 있고, 사납게 불던 바람도 고요하고, 용왕이 도왔는지 강물도 고요하고, 백사장에 놀던 갈매기도 목을 길게 빼어 꾸루룩 소리 하며, 심상한 어선들은 가던 돛대 머무른다. 뜻밖에 강 가운데로부터 한 줄 ㉢맑은 기운이 뱃머리에 어렸다가 잠시 뒤에 사라지며 날씨가 화창해 지거늘, 부인이 반겨 일어서서 보니 가득히 부엌던 잔이 반이나 없었으므로, 소저의 영혼을 못내 슬퍼하더라.

하루는 광한전 옥진 부인이 오신다 하니 ㉣수궁이 뒤늦는 듯 용왕이 겁을 내어 사방이 분주했다. 원래 이 부인은 심 봉사의 처 괘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었더니, 그 딸 심 소저가 수궁에 왔다는 말을 듣고, 상제께 말미를 얻어 모녀 상봉 하려고 온 것이었다.

심 소저는 누신 줄을 모르고 멀리 서서 바라볼 따름이었다. 오색구름이 어린 오색 가마를 옥기린에 높이 싣고 벽도화 단계 화를 좌우에 벌여 꽃고, 각 궁 시녀들은 옆에서 모시고, 청학 백학들은 앞에서 모시며, 봉황은 춤을 추고, 앵무는 말을 전하는데, 보던 중 처음이더라.

이윽고 교자에서 내려 섬돌에 올라서며,
“내 딸 심청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모친인 줄 알고 왈각 뛰어 나서며,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죽었으니 지금까지 십오 년을 얼굴도 모르오니 천지간 끝없이 깊은 한이 깎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와서야 어머니와 만날 줄을 알았더라면, 오던 날 부친 앞에서 이 말씀을 여쭙았더라면 날 보내고 설운 마음 적이 위로했을 것을……. 우리 모녀는 서로 만나 보니 좋지만은 외로우신 부친은 뉘를 보고 반기시리까. 부친 생각이 새롭습니다.”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귀히 되어 인간 생각 아득하다. 너의 부친 너를 키워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이 오죽하랴. 내가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의 부친 너를 잃은 설움에다 비길쏘냐. 몰노라. 너의 부친 가난에 질어 그 모습이 어떠한냐. 응당 많이 늙었으리라. 그간 십수 년에 홀아비나 면했으며, 뒷마을 귀덕 어미 네게 극진하지 않더냐?” 얼굴도 대어 보며, 수족도 만져 보며,

“귀와 목이 희니 너의 부친 갈기도 하다.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 아니 내 딸이랴. 내 끼던 ㉥옥지환도 내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강녕’, ‘태평안락’ 양편에 새긴 돈 붉은 춤치 청홍당사 별매듭도 애고 네가 찾구나. 아비 이별하고 어미 다시 보니 다 갖추기 어려운 건 인간 고락이라.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광한전 맑은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비우기 어렵기로 도리어 이별하니 애통하고 딱하니 내 맘대로 못 하니 한탄한들 어이할쏘냐. 후에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하고 떨치고 일어서니, 소저 만류하지 못하고 따를 길이 없어 울며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더라.

이때 심 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근근이 살아갈 제, 도화동 사람들이 심 소저가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붙잡히 여겨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겼으며,

알 못 보는 아버지 위해
제 몸 바쳐 효도하러 용궁에 갔네.
안개 어린 먼 바다에 마음도 푸르니
봄풀에 해마다 한이 가없네.

강가를 오가는 행인이 비문을 보고 아니 우는 이가 없고, 심 봉사는 딸이 생각나면 그 비를 안고 울더라.

-작자 미상, 「심청전」 (완판본, 71장)-

* 흘리저어: 배 따위를 흘려가게 띄워서 저어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 ②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41.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심청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징표이다.
- ② ㉡: 장 승상 댁 부인에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 ③ ㉢: 장 승상 댁 부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④ ㉣: 심청이 자신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는 공간이다.
- ⑤ ㉣: 심청과 옥진 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징표이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 완판본(71장)에는 장 승상 댁 부인의 등장, 수궁에서의 모녀 상봉, 삼입 시 등과 같이 경판본에 없는 대목이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사의 분위기 형성이나 인물의 성격 구현, 주제 의식의 발현 등에 일정한 차이를 가져왔다.

- ① 옥진 부인의 등장은 심청의 위상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장 승상 댁 부인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군.
- ③ 비석에 새겨진 시는 심청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세간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심청과 옥진 부인이 만나는 대목은 혈연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⑤ 옥진 부인이 심청에게 하는 말은 딸을 물에 빠지게 한 심 봉사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각하고 있군.

43.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물아일체(物我一體)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천우신조(天佑神助)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06. 구운몽 (김만중) - 2026학년도 수능특강 249p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41~43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28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 내가 지난날 토변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을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변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써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酈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

* 풍도옥: 지옥을 이르는 말
 * 출장입상: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 공명신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낸 후 물러남.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④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 ①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 ②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⑤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홀연 보니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안개 자욱이 끼며 용궁 사신 행렬의 깃발이 공중에서 날아오며 사자(使者) 내달아 아뢰되,

“동정호 용왕이 원수의 남해 태자 깨침과 공주 구하심을 듣고 친히 공전에서 축하하려 한대 스스로 맑은 땅에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고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가 원수를 청하여 옥되시더라도 잠깐 입하시게 하시고 겸하여 공주를 궁중에 돌아오시게 하시더이다.”

원수 왈,

“내 바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마주하고 있고 동정호가 여기서 만 리 밖이라 비록 가고자 한들 어이 얻으리오.” 사자 왈,

“이미 수레를 갖추어 여덟 용이 끌고 있으니 만나질만 하면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양 원수 용녀와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니 신령한 바람이 수레바퀴에 불어 공중에 오르니 이미 인간 세상에서 몇 천리를 떠난 줄 알지 못하되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덮은 양을 볼러라. 잠깐 사이 동정호에 다다르니 용왕이 맞아 주인과 손님의 예법과 위용이 자못 엄숙하더라.

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절탕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용왕 왈,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만딸이 경하강(溟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옥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A]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용왕 왈,

“유씨는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용왕이 원수를 궐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피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이 피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니이까. 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피를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원수 이 피를 모르시리이다. 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원수 왈,

“어이 하면 저 피를 보리이까.”

용왕 왈,

“날이 아직 늦지 아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피 아래 이르렀더라. 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거뿔 흐르는 절경이지만, 볼 거를이 없는지라, 환탄하여 가로되,

㉠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좇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배하소서.”

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營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원수 장졸을 모으고 문 왈,

“너희들 밤에 무슨 꿈이 있더냐.”

㉡ 모두 답 왈,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졸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장수를 생포하였나이다. 이 필연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원수 크게 기뻐 자신의 꿈을 이르고 장졸을 거느려 백룡담 위로 가 보니 고기 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 흘러 내가 되었더라. 원수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 물을 때 마시고 또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낫거늘, 그제야 군병과 전마를 일시에 먹이니 즐겨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적병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항복코자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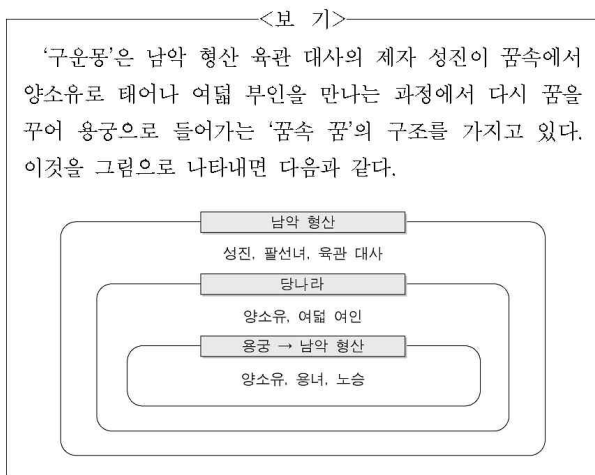
- 김만중, 「구운몽」 -

* 유의: 중국 당나라 소설 '유의전'의 주인공.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25.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닫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의 식을 갖게 하는군.

26. [A]는 ‘유의전’의 이야기를 빌려와 쓴 부분이다. ‘구운몽’과의 대응 구조를 표로 나타낼 때, ㉠, ㉡에 알맞은 것은? [1점]

	유의전	구운몽
구출자	㉠	양소유
적대자	경하강 용왕의 아들	㉡
구출 대상	동정호 용왕의 만딸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

- | ㉠ | ㉡ |
|--------------|------------|
| ① 육관 대사 | 남해 태자 |
| ②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 ③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 |
| ④ 동정호 용왕 | 남해 태자 |
| ⑤ 동정호 용왕의 아우 | 남해 태자 |

27. ㉠에 담긴 양소유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귀거래(歸去來) 귀거래 말뿐이요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쩔꼬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 ②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놀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나 정 좌수 왔다 하여라
- ③ 강산 좋은 경(景)을 힘센 이 다들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냐
진실로 금(禁)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殊常)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 ⑤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 흘러들어
반 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

28.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②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07. 호질 (박지원) - 2026학년도 수능특강 312p
2012학년도 수능 25~28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러(東里寡婦之間)’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밤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 분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늬를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떻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찌죽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영금영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훉(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대, 유(儒)*란 것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러.”

- 박지원, 「호질」 -

* 유(儒): 선비.

** 유(諛): 아첨하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③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 ⑤ (마)는 (가)와 구조 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 준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북광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광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광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광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광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광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광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광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① '여우가 사람 시늬를 한다'는 말은 북광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②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광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은 북광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④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는 말은 북광 선생이 법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북광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8. (라)~(바)에 나타난 북광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④ 대경실색(大驚失色)
- ⑤ 전전공공(戰戰兢兢)

2026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소설

평가원 기출 모음

- 빠른 정답 -

01. 전우치전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41	①	42	②	43	④	44	⑤	45	④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37	②	38	⑤	39	④	40	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29	②	30	③	31	②	32	④		

02. 김진옥전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3)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34	①	35	①	36	⑤	37	②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B형 (고3)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35	①	36	②	37	⑤	38	①		

03. 속향전

2015학년도 수능 B형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35	③	36	⑤	37	②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44	③	45	⑤	46	③	47	①	48	⑤

200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23	④	24	①	25	⑤	26	①	27	①

04. 수궁가

2016학년도 수능 B형 (토끼전)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37	①	38	⑤	39	③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43	①	44	①	45	④	46	③		

05. 심청전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31	⑤	32	②	33	③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40	①	41	③	42	⑤	43	①		

06. 구운몽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41	③	42	④	43	①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24	⑤	25	②	26	⑤	27	①	28	①

07. 호질

2012학년도 수능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25	③	26	⑤	27	②	28	①		